

# 빅토리아공원에서 펼쳐진 전통문화의 향연

— 향향 조국 반환 27주년을 기념하며

향향 조국 반환 27주년을 맞아 중국 전통문화의 맛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와 향향에서 열렸다.

‘향향 조국 반환 27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빅토리아공원 반환 기념’ 행사가 7월 1일을 전후하여 개막되었다. ‘다채로운 절경을 통해 보는 중국’을 주제로 한 중국의 전통문화 요소들은 빅토리아공원의 곳곳을 수놓았다.

향향 빅토리아공원에서 일곱 조각의 칠교판(七巧板)으로 만든 거대한 룡과 봉황 그림 앞에서 향향 시민 장은평(69세)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은색 매듭단추로 장식된 짙은 자주색의 프린팅 치포 차림을 한 장씨 뒤로는 섬서성 황제릉, 사천성의 고대 유적지 삼성퇴, 산둥성의 《여덟신선이 바다를 건너다》(八仙过海) 신화 장권(长卷) 등 압축된 경관이 펼쳐져 있다.

##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

섬서성 황제릉 문화 테마전은 교산 봉우리의 절경을 빅토리아공원에 그대로 옮겨 향향 시민들에게 중화민족 인류문화의 시조 현원 황제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 밖에 흑도(黑陶), 면화(面花), 찻살가루나 밀가루에 색을 첨가해 인물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드는 전통 민속공예, 전지 등 현지 전통 수공예품도 전시되었다.

향향동관사회단체총회는 많은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전시품 가운데서 원단을 모아 무어 만든 액자, 아가씨 등 유아용품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게 뭐예요?” 한 어린이가 질문을 던지며 호기심을 보였다. “백세패(牌) 예요. 어린이의 100세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죠.” 자원봉사자 채씨

의 대답에 이어 시민 림숙분은 “향향에도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제작법을 설명해주었다.

무형문화유산 전시품 옆에는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디자인한 동관 아트 토이 브랜드도 전시되어 있다. 명남 문화의 새로운 발전을 향향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전통과 현대의 만남, 새로운 문화 체험

청록빛을 띤 산동 연태 전시구역. 연태시 관광지인 봉래각 모형 아래 펼치기 되어있는 모형 룡꽃과 사방에서 피어오르는 운무는 관객들에게 섬을 걷는 듯한 느낌을 선사했다.

전시구역에 울려 퍼지는 배경음악은 지난 1985년 향향 아시아 TV가 방영한 인기 드라마 《여덟신선이 바다를 건너다》에서 등장한 것으로 전시품에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이다. 아난게 아니라 관람객들 속에서 탄성이 쏟아졌다. “아, 돌아온 내 청춘이여!” 전시장 중앙을 가리며 펼쳐져 내린 거대한 두루마리는 고전의 정취와 현대 미학을 반영한 흥미로운 《여덟신선이 바다를 건너다》의 전설을 생생하게 풀어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 ‘선경의 해안 연태’ 테마 전시장

▲ 삼성티 VR 인터랙티브 캡슐을 체험하는 방문객



이 밖에 사천 덕양 전시구역에서는 삼성티 문화창의 구역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청동대립인상(大立人像), 청동종목가면 등 복각 문화유산은 물론 닭알 껍데기 형상을 한 VR 인터랙티브 캡슐도 소개되었다. 관람객은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삼성티의 고고학적 의미를 들여다보고 고고학 신기술을 직접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문화관광의 활력 발산

춘추시대 군악을 연상케 하는 산둥 빈주 전시구역에는 병성(兵冢) 손자(孙子)의 조각상이 우뚝 서있다. 랑쪽에는 《손자병법》의 고전 문장이 새겨진 현판이 자리해 있다.

군막 입구에서 갑옷을 입고 총칼을 들고 보초를 서는 몇몇 젊은 ‘병사’ 군

치로 사람들이 몰려 복색통을 이루었다. 사진을 찍던 빈주시 무태현 직업 중등전문학교 학생 배우들이 신난 목소리로 손자를 소개했다. “《손자병법》은 병서일 뿐만 아니라 군사를 넘어선 분야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설명과 함께 관람객을 향해 “우리 고향에 놀러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도 잊지 않았다.

료녕성 심양 전시구역에서 설탕인형(糖人), 가죽가방조각 등 현지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선보인 심양시 문화관광및방송국 국장 류국빈은 “전시를 찾은 중국 본토의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향향특구의 반환을 경축하고 향향의 발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 신화넷

## 조선족 유명 작가 허련순 문학특강 연길서

중국조선족 유명 작가 허련순소설가의 《오늘을 부정하지 않으면 래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제목의 특강이 6월 28일 오전 연변작가협회의 주최로 연변도서관 대강당에서 있었다.

이번 특강에서 허련순작가는 《안타오스의 계시》, 《문학과 철학》, 《내게 맞는 책 읽기》, 《제목이 작품의 절반 지분이다》, 《첫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다》, 《자신을 파괴하는 권리가 작가의 정신이다》 등 다양한 주제로 작가들과 문학애호가들에게 창작에 필요한 조언과 계시를 주었다.

연변작가협회 상무부주석 리혜숙, 부주석들인 김영진, 리승국, 전화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연변작가협회 회원들과 연변인민출판사, 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연길시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의 문학담당 편집들, 그리고 문학애호가 등 포함 100명이 현장에서 수강하였으며 광동성, 하남성, 산둥성, 한국 등 곳에 널리 있는 문학애호가 30여명이 온라인으로 수강하였다.

두시간 되는 허련순작가의 조리 있고 열정이 넘치는 강의에 이어 한 시간 동안 작가들과 문학애호가들이 창작에서 더 알고 싶은 것, 창작 과정에서 부딪치는 애로, 또 허련순작가의 소설에서 더 알고 싶은 창작 이야기나 모티브 설정, 테마의 구성



▲ 특강 현장에서의 허련순작가

등 내용으로 된 질의시간이 마련되었는데 허련순작가는 해박한 해답으로 특강의 완성도를 높였다.

허련순작가는 국가 1급 작가이며 연변작가협회 부주석을 역임했고 중국작가협회 회원이다. 그는 연변 녀성문인협회를 설립하고 리드해오기도 했다. 작품집으로는 장편소설 《바람꽃》,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는가》, 《중국 색시》, 《춤추는 꼭두》, 《안개문》, 《위씨네 사랑》, 《숨소리 듣는다》 등 7권과 중단편소설집 5권, 인물전기 4편, 연속드라마 3편이 있다.

허련순작가는 제 6기, 제 12기 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 준마상을 비롯하여 길림성정부 장백산문예특별상, 연변조선족자치정부 진달래문예상외에 40여차례의 국내외 굵직한 문학상들을 수상하였다. / 송미자

## ‘중국최고무용수’ 선발대회 연변대학서



▲ 개막식 공연

‘2024년 중국 최고 무용수 성장계획(길림지역)’ 선발대회가 일선 연변대학 예술학원에서 진행되었다. “중국 최고 무용수 성장계획”은 중국무용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중국문화예술계연합회 무용예술중심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무용수 양성 프로젝트로 2021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올해 선발대회는 개인조와 군무조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전국 26개 지역에서 선발대회가 치러진다.

올 4월부터 진행된 ‘2024년 중국 최고 무용수 성장계획(길림지역)’ 선발대회에는 길림성의 각 대학교, 예술단체, 문화관, 교육기관 및 중소학교의 무용애호가 2,900여명이 신청을 하였다. 이후 중국무용가협회의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개인

조 267명, 군무조 61개 작품의 총 900여명이 이번 지역 현장선발대회에 진출했다.

2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 대회에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전문추천위원들은 현장 심사를 통해 우열을 가려냈다.

최종 선발된 무용수들은 ‘2024년 중국 최고 무용수 성장계획’ 전국훈련캠프에 참가하여 ‘최고의 무용수’, ‘최고의 무용수 희망의 별’ 타이틀을 놓고 경쟁할 기회를 얻게 된다. 동시에 우수군무작품은 전국 전시공연무대에서 빛을 발산할 기회를 얻게 되며 개인전과 군무 부문에서 ‘올해의 최고 교원’, ‘올해의 최고 작품’, ‘올해의 최고 안무가’ 등 타이틀을 수여 받게 된다. / 연변대학넷

## 박물관에 세워진 예술생활관 —

#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문화 체험

동한시대 청동말 조각상 인형과 그 래피티(涂鸦), 수천년 력사의 체도관(彩陶罐), 향아리처럼 생긴 그릇의 일종) 모양의 디지털, 동굴 안에 마련된 유물 테마 카페... 감속성박물관 예술생활관에서는 련객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감속성 란주시에 위치한 이 예술생활관은 지난 6월 19일 정식 개관되었다. 유물을 전시하는 보통의 박물관과 달리 이곳엔 젊은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상품이 전시되었다.

“창조적인 상품을 찾는 주요 고객은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의 수요로 종합 문화 공간이 탄생하게 됐고 이는 젊은 창작인들이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죠.” 감속성박물관 창의센터의 책임자 최유심은 본인도 1990년 대생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전국 각지 박물관들에서는 더욱 다양화된 문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창의성 제품의 세대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복합형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상해력사박물관이 만든 해파(海派, 상해) 스타일의 카페, 소주박물관이 KFC와 함께 조성한 소주 테마 레스토랑... 갈수록 많은 박물관들에서

카페, 료식, 예술, 창의성 상품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연(智研)컨설팅이 발표한 《2024년-2030년 중국 창의성 상품 업계 경쟁 구도 분석 및 투자 발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창의성 상품 시장 규모는 16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09% 확대되었다.

감속성박물관 창의작품팀은 10년에 가까운 담금질을 통해 7대 창의성

상품, 지식재산권(IP) 시리즈 상품 약 1,000종을 개발했다. 그중 동한시대 청동말 조각상을 본떠 만든 캐리커 인형은 핫 아이템이 되었다. 지난해말 기준 해당 시리즈 제품 판매액은 700만 원에 달했다.

감속성박물관 예술생활관은 유물과 현지 특산물 요소를 전시, 료식, 베이킹(烘焙), 예술상점, 창의성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업종과 결합시켰다.

6월초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예

술생활관의 하루 방문자수는 연인수로 최소 5,000명에 달했으며 창의성 인형은 출시되자마자 바로 품절되었다고 소개하는 예술생활관 책임자 최유심, “사람들이 전통문화도 세련되었다는 것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한다.

감속성박물관 부관장 사책은 정신문화를 향한 대중들의 수요가 날이 증가함에 따라 박물관도 창조성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신화넷



▲ 감속성박물관 예술생활관에서 창의성 제품을 고르고 있는 관객들

▶ 감속성박물관 예술생활관 구역에서 책을 읽고 있는 독자



## 스타벅스, 전통문화를 덧입다

전통문화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감속성 최초의 스타벅스 무형문화유산 주제 상점이 일선 소주에서 문을 열었다. 사진은 스타벅스에 전시된 무형문화유산 작품들. / 신화넷